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5. 10.(금) 10:00 < 5.10.(금) 석간 > 배포 2024. 5. 9.(목)

에어버스와 R&D센터 설치 양해각서(MOU) 체결

- 항공·우주·방산 분야 핵심 소재·장비 개발 글로벌 협력 초석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월 10일(금), 에어버스 DS(Defence & Space)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프란시스코 세구라 일행을 만나 에어버스* ITC(International Technology Centre) 한국 설립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정출연 및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항공·우주·방산 분야 국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에어버스는 ①에어버스(민항기), ②에어버스 DS(항공방산·우주), ③에어버스 헬리콥터스로 구성

** 참석자 : 산업부(산업정책실장), 에어버스 DS(COO), 에어버스 코리아(대표), KEIT(원장), ETRI(부원장), LIG넥스원(감시정찰 사업부장 등), 항우연(센터장) 등

이번 양해각서(MOU)의 주요 내용은 △ 에어버스 ITC 국내 설립을 위한 에어버스와 산업부 간 협력 △ 에어버스와 국제 연구개발(R&D) 협력 등이다.

산업부는 '22년 11월 장관과 에어버스 DS CEO 면담에서 에어버스 R&D 센터 한국 내 설립을 요청한 이후, 양자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왔고, 그 결과 에어버스 DS는 에어버스 ITC로 명명된 R&D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산업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에어버스는 그린필드(Greenfield)**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T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금년 내 ITC 설립지역 선정을 목표로 한다.

* '23.2월 제조산업정책국장-에어버스 헬리콥터스 북아시아대표, '23.4월 산업정책실장-에어버스 DS 아태총괄사장, '23.7월 제조산업정책국장-에어버스 DS 부사장, '23.9월 1차관-에어버스 DS CEO 등

** 외국기업이 스스로 사업소를 설립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

양측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해각서(MOU) 기간 동안 운영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ITC의 자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어버스는 한국 정부의 중요한 지원을 받아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항공 산업의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고, ITC의 전략적 비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육성할 것이다. 에어버스 ITC는 에어버스가 국내 최초로 한국에 설립하는 R&D센터이자 향후 한국과 에어버스(민항기, 헬기 등 포함)간 연구개발 협력의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에어버스 ITC 국내 유치를 통해 항공·우주·방산 분야 글로벌 협력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등 5대 첨단 방산 소부장 개발에 금년에만도 4,000억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 만큼, 에어버스와의 글로벌 연구개발(R&D)도 연계·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우주항공팀	책임자	팀 장	김봉석 (044-203-4305)
		담당자	서기관	임형남 (044-203-43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